

## 아시아와 복음 외 2009 년 3 월 31 일- 아세르 인트레이터

이번 주에 저는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성도들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투자하고 파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 2:3, 66:19). 저희 팀원인 유발 야나이와 아리엘 블루멘탈은 아시아에서 저희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이들과 더불어 전략적 아웃리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아리엘은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고, 중국어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며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꽤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메시아닉 유대인들보다 아시아 문화에 조예가 깊은 사람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당신의 증인이 되라는 대위임을 주셨습니다 (행 1:8).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면, 땅 끝에 분명히 동아시아가 해당됩니다. 샤울 (바울)이 이방 국가에 복음을 전하려 떠났을 때, 그는 먼저 북쪽의 시리아와 터키로 향했습니다. 그는 동쪽의 아시아로 가길 원했지만, 성령께서 서쪽의 유럽으로 가라는 전략적 지시를 주셨습니다 (행 16:6).

수세기 동안 복음의 주된 움직임은 서진이었습니다. 1960 년대부터 대한민국에는 엄청난 부흥의 물결이 임해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그리스도인’의 비율이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됐습니다. 1980 년대로부터 중국의 지하 교회가 성장을 시작했고, 현재 그 곳에는 거대한 성도가 1 억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존하는 인류의 대다수는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90 년대에 많은 중국 성도들이 “백 투 예루살렘” 혹은 “실�크로드”로 알려지게 된 비전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아시아 전체에 전하고 무슬림 국가들까지도 지나,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세계를 순회하고 나면 우리가 예슈아의 다시 오심을 맞을 준비가 되리라는 기본적인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허나 이스라엘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 계획에 관하여는 별다른 계시가 없었습니다.

###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슈아의 재림 사이에는 직접적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임”이라고 알려진 것은 본질상 종말의 메시지와 연결돼 있습니다.

현대 메시아닉 운동이 시작된 70 년대, 주요 동인은 전도였습니다. 저희는 유대 정체성을 유지함으로 저희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전 9:20). 더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자, 저희는 목회적인 동기도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유대인으로서 다른 민족들처럼 저희 문화와 세계관을

않지 않고 신앙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예슈아를 믿을 수 있도록 한 **행 15** 공의회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저희는 **가르침**에 대한 부분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상당 부분이 율법과 선지서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 율법적, 이스라엘 대체적, 비 언약적, 그리고 반 천년왕국 적인 신학을 교정하는 것은 문화적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의 근본적 진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마 5:17-19**).

매일 우리는 재림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기에, 메시아닉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지는 점점 더 **예언적** 중요성을 갖게 됩니다.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 민족을 위해 기도하거나 (**롬 9:1**), 아니면 그들을 향한 전도의 부담을 갖거나 (**롬 1:16**), 혹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룻 1:16**)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림을 예비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예슈아께서 올리브 산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돌아오실 것입니다 (**행 1:11**).

마지막 때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대한 국제 연합군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겔 38-39**).

예슈아께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에 맞서 싸우실 것입니다 (**슌 14:1-15**).

이스라엘의 부흥은 재림의 선제 조건입니다 (**마 23:39**).

이스라엘의 회복은 죽은 자들의 부활을 위한 선결 과제입니다 (**롬 11:15**).

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사 2, 미 4**).

[주: 재림 이전, 저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로부터 **사도적** 사역과 권세의 회복도 일어나 그리스도의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믿지만 (**행 1:25; 2:42; 8:14; 15:2; 15:22; 16:4**),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언의 성취인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이 예언의 성취냐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50 대 50 이라고 답을 합니다.

히브리 예언서 전체가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기본적으로 두 단계로 이뤄집니다. 첫째는 육적인 것이요 그 다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겔 36:24** -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유대 민족을 다시 모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시리라는 이 구절은 약 1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복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겔 36:26-27 -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영적 부흥은 예언의 나머지 절반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부흥은 이제 겨우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 국가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보고, 이것이 과연 예언의 성취이긴 한가 의심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을 미화시켜서 그 땅에 영적 각성의 큰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약속된 회복의 양면을 다 볼 때에- 하나는 거의 다 성취되었고 하나는 거의 성취되지 않은- 우리는 현대 이스라엘과 성경의 예언에 대한 균형잡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흥과 전세계 복음 전파를 위해 저희와 동역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Shaul Byunghyun Go*